

7) 기타

(1) 선암사 승선교(昇仙橋)

선암사 경내에 있는 이 승선교는 이곳의 주산(主山)인 조계산 계류의 건널목에 놓인 다리이다. 기저부에는 별다른 시설물 없이 자연암반을 이용하여 육중한 무게를 떠받치고 있다. 자연암반이므로 홍수가 나도 급류에 휩쓸릴 염려가 없는 견고한 자연기초를 이루고 있다. 홍예(虹蜺)아치는 지면에 면한 하부부터 원형으로 내쌓기 시작하여 완전한 반원형을 이룬다. 결구방법은 잘 다듬은 장대석을 종(從)으로 1단씩 빈틈없이 밀접시켜 스스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홍예를 중심으로 하여 양쪽 천변과의 사이는 자연석을 쌓아 석벽을 이루고 그 상부에도 축석하였는데, 석재는 모두 주변 냇가의 돌을 사용한 것 같다. 상면은 평평히 정지하여 일반적인 교량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오른쪽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을 피하게 했다.

홍예의 축조양식 및 수법은 별교 홍교와 같으나 별교 홍교보다 약 20년 전에 만들어졌다. 인근에 있는 홍교비의 기록에 따르면 이 승선교는 1713년(숙종 39) 10월에 선암사의 호암화상(護岩和尚)이 6년 만에 완공하였고, 그후 중수한 사실도 알 수 있다. 승선교의 규모는 길이 14m, 높이 4.7m, 너비 4m이며 1963년 9월 2일에 보물 제400호로 지정되었다.

(2) 선암사 동제 '승정육년'명 향로

이 향로는 응향각에 소장되어 있다. 받침대에 “승정육년계유삼월일조계산선암사십근입향제시주□영립김희조성화사경친삼보성혜(崇禎六年癸酉三月日曹溪山仙巖寺十斤入香歲施主□榮立金希造成化士敬天三寶性惠)”란 명문이 있어 1633년(인조 11)에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3) 목판과 편액(扁額)

현국사찰소장목판집』에 따르면 송광사에 65종 3,901권의 목판이 있고, 선암사에 26종 835권의 목판이 있다. 이들 목판은 양 사찰의 조각기술과 인쇄술을 가늠할 수 있으며, 당시 활발하였던 불교문화의 일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밖에 향림사와 도선암에도 목판 1점씩이 있다.

편액은 각 전각에 걸려 있는 현판으로 서예를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선암사에 40여 점의 많은 편액이 남아 있다. 송광사의 편액은 아직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으나, 건물이 선암사보다 많이 남아 있으므로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혜사와 동화사에도 몇 점의 편액이 걸려 있다.

참고자료

李晬光, 『昇平志』, 1618.

李泰浩, 『昇州郡의 美術史蹟』, 『昇州郡 文化遺蹟 地表調査』, 『昇州文化院』, 1984.

鄭永鎬, 『住岩담 水沒地區 美術史分野調査報告』, 『住岩담 水沒地區 地表調査報告』, 『全南大博物館』, 1985.

박상국, 『현국사찰소장목판집』, 『문화재관리국』, 1987.

文化財管理局, 『桐華寺 三層石塔 修理報告書』, 1990.

全羅南道, 『文化財圖錄』, 1992.

昇州郡·南道佛教文化研究會, 『仙巖寺』, 1992.

成春慶·崔仁善, 『順天市の 佛教遺蹟』, 『順天市の 文化遺蹟』, 『順天大博物館·順天市』, 1992.